

자료해석영역

1. <표>는 2010년 우리나라의 간이생명표를 요약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간이생명표

(단위: 년, 명)

연령대 x에서 x+n	기대여명 (전체)	기대여명 (남성)	기대여명 (여성)	생존자 (남성)	생존자 (여성)
0-1세	80.79	77.20	84.07	100,000	100,000
1-5세	80.06	76.48	83.30	99,631	99,727
5-10세	76.12	72.55	79.36	99,541	99,649
10-15세	71.16	67.60	74.39	99,476	99,608
15-20세	66.20	62.64	69.43	99,404	99,555
20-25세	61.30	57.76	64.49	99,216	99,457
25-30세	56.43	52.92	59.60	98,933	99,287
30-35세	51.60	48.11	54.74	98,561	99,053
35-40세	46.78	43.31	49.88	98,111	98,784
40-45세	42.00	38.58	45.05	97,485	98,434
45-50세	37.31	33.97	40.24	96,432	97,978
50-55세	32.73	29.51	35.49	94,779	97,327
55-60세	28.27	25.23	30.80	92,332	96,432
60-65세	23.92	21.10	26.16	88,874	95,221
65-70세	19.74	17.16	21.63	84,081	93,332
70-75세	15.78	13.49	17.31	77,001	90,095
75-80세	12.20	10.26	13.30	66,151	84,355
80-85세	9.12	7.57	9.83	50,839	73,724
85-90세	6.64	5.49	7.04	32,163	56,320
90-95세	4.79	4.01	4.99	15,073	34,056
95-100세	3.49	3.00	3.57	4,695	14,416
100세 이상	2.60	2.34	2.66	885	3,752

- 주 1) 간이생명표: 어느 인구집단에 100,000명이 동시에 출생하였다는 가정 하에 특정 연령 이상 살아남은 사람의 수, 일정한 연령대에서 사망하는 확률과 사망자수, 일정한 연령대에서 생존하는 사람의 수, 평균적으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명 등을 표시함.
 2) 기대여명: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3)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를 뜻함.
 4) 사망확률: 특정연령 x세인 사람이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
 5) 생존자: 특정연령 x세에서의 생존한 사람수로, 동시에 출생한 100,000명이 사망확률에 따라 사망으로 감소할 경우 x세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수

- ① 남녀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6년보다 크다.
 ②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기대여명이 여성의 기대여명보다 짧다.
 ③ 50세까지 산 사람은 평균적으로 82.73세까지 생존한다.
 ④ 70세 남성이 75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은 75세 여성이 80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보다 높다.
 ⑤ 45세의 여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의 1.5배 이상이다.

2. <표>는 2010년 지역규모별 교육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지역규모별 학교수

(단위: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광역시	1,622	983	605	194
중소도시	1,666	908	576	194
읍·면지역	2,198	1,087	333	274
도서벽지	368	152	47	30

<표 2> 지역규모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광역시	19.4	19.3	16.9	13.0
중소도시	21.5	19.7	16.9	14.4
읍·면지역	13.6	13.1	13.7	11.4
도서벽지	9.1	10.1	11.0	11.1

<표 3> 지역규모별 교원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광역시	60,623	39,705	39,016	12,353
중소도시	54,074	37,023	33,671	11,733
읍·면지역	28,692	17,074	9,594	7,697
도서벽지	3,827	1,973	786	832

<표 4> 지역규모별 컴퓨터 1대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광역시	6.0	6.3	6.4	1.8
중소도시	6.5	7.2	6.8	2.4
읍·면지역	3.5	1.9	4.0	1.9
도서벽지	2.2	2.5	3.0	2.0

<보 기>

- ㄱ. 특별/광역시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보다 많다.
 ㄴ.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학생 1인당 컴퓨터 보급 대수는 특별/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4배이다.
 ㄷ. 특별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총 대수는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총 대수보다 많다.
 ㄹ.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당 교원수는 특별/광역시가 도서벽지에 비해 5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 <표 1>은 피해자조사에 의한 자료이며 <표 2>는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한 범죄통계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피해자조사는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범죄통계자료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표 1> 피해자조사에 의한 주요 범죄 현황(2009년)

(단위: %, 원)

구분	범죄신고율	범죄 건당 평균 피해액
절도	11.3	569,074
사기	10.4	952,470
강도	9.1	1,195,055
성폭력	3.4	316,152
폭행	18.9	379,382

주 1) 평균 피해액은 피해자 개인이 입은 직접손실만을 계산한 것임.
2) 범죄신고율 = (범죄신고건수 / 실제 범죄발생건수) × 100

<표 2> 범죄통계자료에 집계된 연도별 주요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연도	범죄유형				
	절도	사기	강도	성폭력	폭행
2005	191,114	203,697	5,266	11,757	92,344
2006	190,745	203,346	4,684	13,573	98,939
2007	212,530	186,115	4,470	13,634	98,581
2008	223,264	205,140	4,827	15,094	107,947
2009	256,680	224,889	6,379	16,156	115,524

<보 기>

- ㄱ. 2009년 범죄신고율은 절도가 성폭력의 3배 이상이다.
ㄴ. 2009년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절도범죄건수는 230만건보다 많다.
ㄷ.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9년 범죄발생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이다.
ㄹ. 2009년 사기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2조원을 초과한다.
ㅁ. 2009년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범죄건수는 폭행이 강도의 18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4. <표>는 국내 학술단체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1~2010년 동안 발간한 논문의 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이다. <정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 분야를 모두 고르면?

<표> 국내 학술지 분야별 발간 현황

주제분야	학술지수 (권)	총 논문수 (편)	총 저자수 (명)	총 참고문헌수 (권)
인문학	513	108,973	115,703	1,251,003
사회과학	676	139,277	216,282	1,942,674
자연과학	126	74,457	241,436	668,564
공학	256	145,311	450,782	916,807
의약학	241	102,952	489,842	1,133,622
농수해양	76	35,491	145,127	351,794
예술체육	112	39,001	69,446	450,126
복합학	100	16,986	30,608	213,072
합계	2,100	662,448	1,759,226	6,927,662

<정 보>

- 이 분야는 논문당 평균 저자수가 가장 많다.
- 이 분야는 학술지당 평균 저자수가 인문학, 복합학 다음으로 적다.
- 이 분야는 논문당 평균 저자수가 4명보다 많으며, 논문당 평균 참고문헌 수는 10권을 넘지 않는다.
- 이 분야는 논문당 평균 저자 수가 2명보다 적으며, 논문당 평균 참고문헌 수가 12권 이상으로 사회과학 다음으로 많다.

- ① 사회과학, 의약학, 농수해양, 복합학
② 인문학, 사회과학, 의약학, 농수해양
③ 인문학, 사회과학, 의약학, 복합학
④ 사회과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⑤ 인문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7. <표>는 카드사의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려는 사람(갑, 을, 병, 정)의 개인별 카드 사용액과 카드사별 마일리지 적립률 및 보너스 항공권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금년도 상반기 월별 카드 사용액 및 전년도 누적 마일리지
(단위: 만원, 마일)

구 분	갑(A사)	을(B사)	병(C사)	정(D사)
1월 사용액	150	300	150	300
2월 사용액	300	150	450	150
3월 사용액	450	150	300	150
4월 사용액	150	450	300	300
5월 사용액	150	150	150	150
6월 사용액	300	150	300	150
전년도 누적 마일리지	80,000	120,000	80,000	120,000

주) 괄호 안의 A~D사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임.

〈표 2〉 카드사별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

	A사	B사	C사	D사
마일리지 적립률	카드사용액 1,500원 당 1마일	카드사용액 1,500원 당 1.8마일	카드사용액 1,500원 당 1.5마일	카드사용액 1,500원 당 2마일

〈표 3〉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왕복기준)
(단위: 마일)

구간		시즌	일반석	비즈니스석	일등석
한국	동북아시아	비수기	30,000	45,000	60,000
		성수기	45,000	67,500	90,000
	동남아시아	비수기	40,000	60,000	80,000
		성수기	60,000	90,000	120,000
	서남아시아	비수기	50,000	75,000	100,000
		성수기	75,000	110,000	150,000
	북미, 대양주, 구주/중동	비수기	70,000	105,000	140,000
		성수기	105,000	185,000	210,000
	남미	비수기	100,000	150,000	200,000
		성수기	150,000	225,000	300,000

-〈보기〉-

- ㉠.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마일리지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을-정-병-갑 순이다.
- ㉡. 성수기의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왕복기준)는 모든 구간과 좌석에서 비수기의 1.5배이다.
- ㉢. 을은 지금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수기에 북미에 다녀오는 보너스 항공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 ㉣. 정은 올해 초 비수기에 보너스 항공권 일반석을 이용하여 남미에 다녀왔다. 올해 크리스마스(성수기)에는 보너스 항공권 일반석으로 서남아시아에 다녀오고자 하는데, 6월까지의 누적 마일리지는 39,000마일이 부족한 상태이다.
- ㉤. 병은 7월 초(비수기)에 중동의 두바이에 다녀오려고 한다. 만약 병이 C사가 아닌 D사의 카드를 사용했다라면 일반석 대신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sqsubset$, $\square$
④ $\perp$, $\sqsubset$, $\square$
⑤ $\perp$, $\sqsubset$, $\square$

8. <표>는 각국의 보건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각국의 보건비

(단위: %, 달러)

	GDP 대비 보건비		보건비 대비 공공보건비		1인당 민간보건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10년
A국	6	7	50	60	1,000
B국	6	9	40	50	700
C국	6	5	75	80	500
D국	8	10	60	60	500
E국	16	20	40	50	4,000

주 1) 보건비 = 공공보건비 + 민간보건비

$$2) \text{ 1인당 민간보건비} = \frac{\text{민간보건비}}{\text{인구수}}$$

—〈보기〉

- ㄱ. 2010년 A국의 1인당 보건비는 2,500달러이다.
- ㄴ. 2000년에 비해 2010년 B국의 GDP가 100% 증가할 경우, B국의 2010년 공공보건비는 2000년에 비해 275% 증가한다.
- ㄷ. E국의 2010년 1인당 GDP는 40,000달러이다.
- ㄹ. 2000년에 비해 2010년 E국의 1인당 보건비가 100% 증가할 경우, 2000년 1인당 민간보건비는 2,500달러이다.
- ㅁ. 2010년 GDP 대비 공공보건비의 비율은 C국이 D국보다 높다.

- ① $\neg, \perp, \vdash$
- ② $\neg, \vdash, \supset$
- ③ $\perp, \vdash, \supset$
- ④ $\perp, \supset, \Box$
- ⑤ $\vdash, \supset,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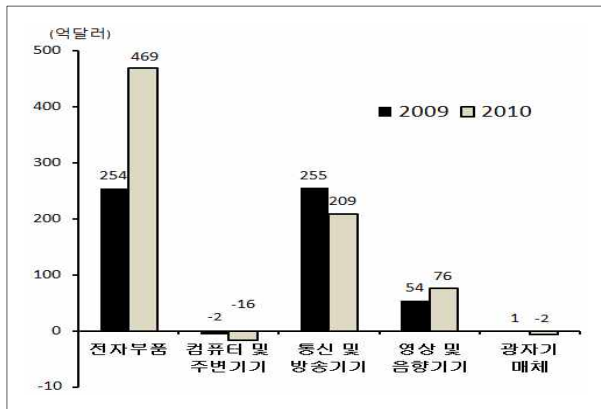
9. <표>는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의 내용을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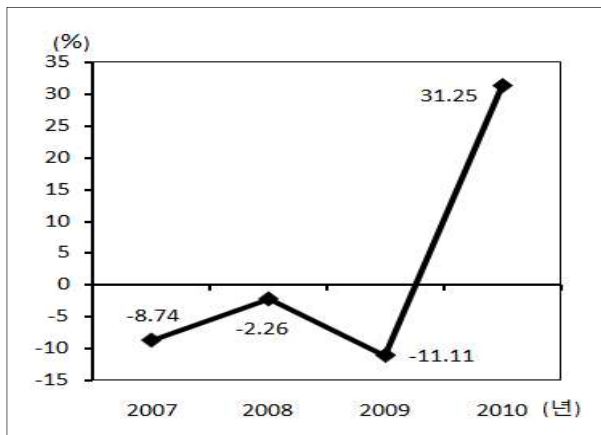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구 분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전자부품	578	655	637	627	9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9	128	97	70	77
	통신 및 방송기기	271	307	360	310	278
	영상 및 음향기기	103	94	90	80	105
	광자기 매체	9	11	11	11	15
	소계	1,080	1,195	1,195	1,098	1,388
수입액	전자부품	367	415	435	373	444
	컴퓨터 및 주변기기	80	86	85	72	93
	통신 및 방송기기	51	56	66	55	69
	영상 및 음향기기	27	29	32	26	29
	광자기 매체	12	15	14	10	17
	소계	537	601	632	536	652

- ①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무역수지 현황



- ② 영상 및 음향기기 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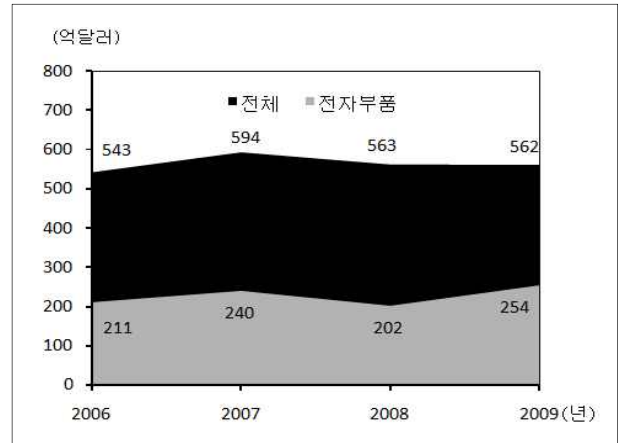


- ③ 전체 무역수지와 부문별 무역수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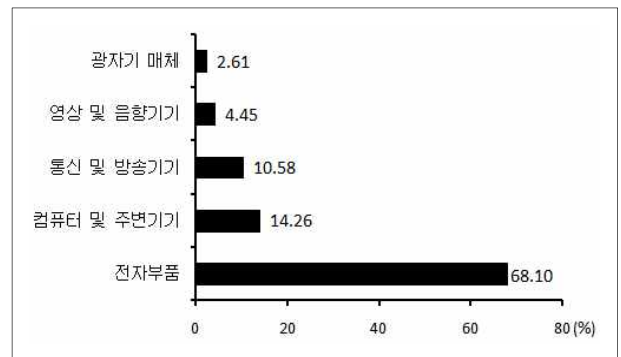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자부품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	-
통신 및 방송기기	+	+	+	+
영상 및 음향기기	+	+	+	+
광자기 매체	-	-	+	-

주) 전체 무역수지와 부문별 무역수지의 관계는 흑자·적자 여부가 일치하면 (+), 다르면 (-)로 표시

- ④ 정보통신기기 전체와 전자부품의 무역수지 연도별 변화



- ⑤ 2010년 정보통신기기 수입액의 부문별 구성비



10.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 성인의 예방행동 및 의료이용률에 관한 자료이고, <보기>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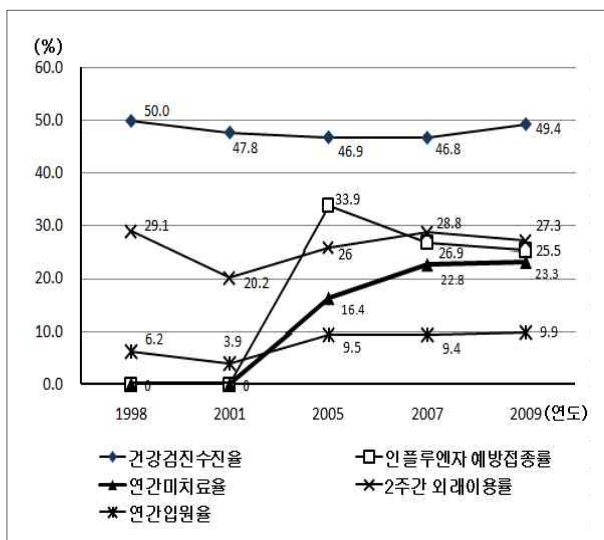
<표> 우리나라 성인의 예방행동 및 의료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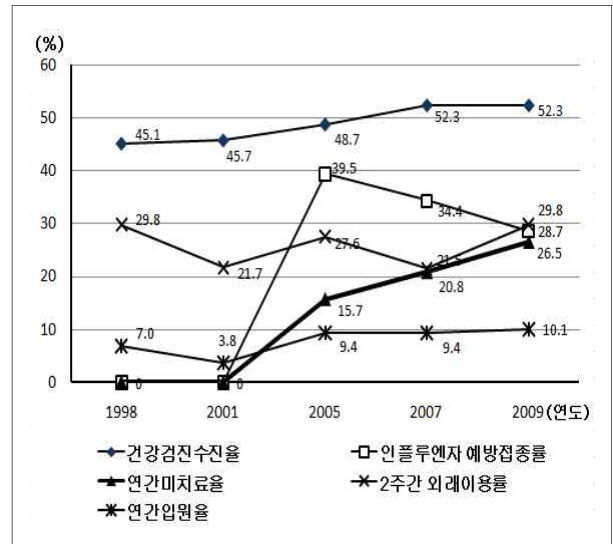
구 분			연 도	1998	2001	2005	2007	2009
예방 행동	건강검진 수진율	전체	48.9	47.1	47.4	47.9	50.1	
		남자	55.7	53.4	53.0	52.2	53.6	
		여자	42.8	42.2	41.9	43.7	46.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전체	-	-	35.0	28.3	26.3	
		남자	-	-	30.1	25.1	24.3	
		여자	-	-	40.1	31.5	28.3	
의료 이용률	연간 미치료율	전체	-	-	16.4	22.4	24.1	
		남자	-	-	15.3	18.5	20.2	
		여자	-	-	17.4	25.9	27.7	
	2주간 외래이용률	전체	29.3	20.6	26.3	27.4	27.9	
		남자	25.0	17.1	22.1	24.3	23.7	
		여자	33.3	23.7	30.5	30.4	32.1	
	연간 입원율	전체	6.5	3.8	9.5	9.4	10.1	
		남자	5.0	4.3	8.6	8.7	8.8	
		여자	7.8	3.4	10.3	10.2	11.5	

- 주 1) 건강검진수진율: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
 3) 연간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4) 2주간 외래이용률: 최근 2주간 외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5) 연간입원율: 최근 1년간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림 1>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의 예방행동 및 의료이용률



<그림 2> 농어촌에 거주하는 성인의 예방행동 및 의료이용률



<보 기>

(ㄱ) 성인의 건강검진수진율은 2001년 이후 조사년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1998년보다 2009년에 건강검진수진율이 3.9%p 증가한 반면, 남성은 2.1%p 감소하였다. (ㄴ) 2009년 도시지역 성인거주자의 건강검진수진율은 2007년보다 7.2%p 증가하였으나, 1998년보다 낮은 수치였고, 농어촌 성인거주자의 건강검진수진율은 2007년보다 증가하지 못했으나, 1998년보다 1.6%p 증가하였다. (ㄷ) 2005년 대비 2007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모두 감소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연간미치료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ㄹ) 성인의 최근 2주간 외래이용률은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연간입원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ㅁ) 조사기간 동안 2주간 외래이용률은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13. <표>는 선거후보자 A~D의 지지도 조사결과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선거후보자 A~D의 지지도 조사결과

(단위: 매)

후보자 \ 차수	1차	2차	3차	4차
A	6	5	6	4
B	3	5	7	7
C	1	3	8	8
D	5	7	4	11
합계	15	20	25	30

<정 보>

- 각 조사는 조사대상자 각각에게 스티커를 한 매씩 나누어 준 후 지지하는 후보자 얼굴사진에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각 조사에서 나누어 준 스티커의 개수는 1차의 경우 15매, 2차의 경우 20매, 3차와 4차의 경우 25매와 30매였다.
- 스티커는 조사대상자 1인당 1매만 배부하였다.
- 각 조사결과와 후보별 스티커 매수 비중의 합계를 후보별 지지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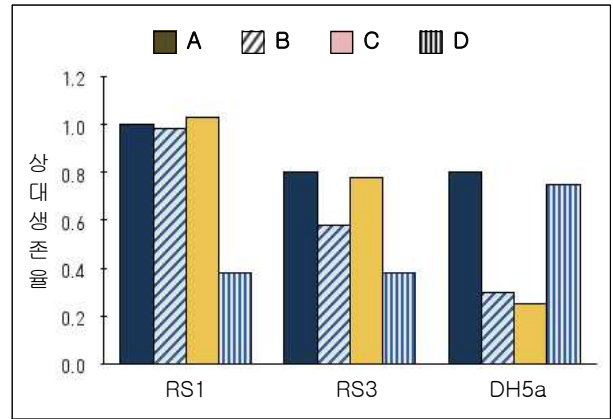
<보 기>

- ㄱ. 지지도가 두 번째로 높은 후보는 A이다.
- ㄴ. 1차 조사에서 스티커 1매를 받는 것이 3차와 4차 조사에서 각각 스티커 1매씩 총 2매를 받는 것보다 지지도 상승에 유리하다.
- ㄷ. A후보와 B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C후보와 D후보의 지지도 격차보다 작다.
- ㄹ. 4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후보별 지지도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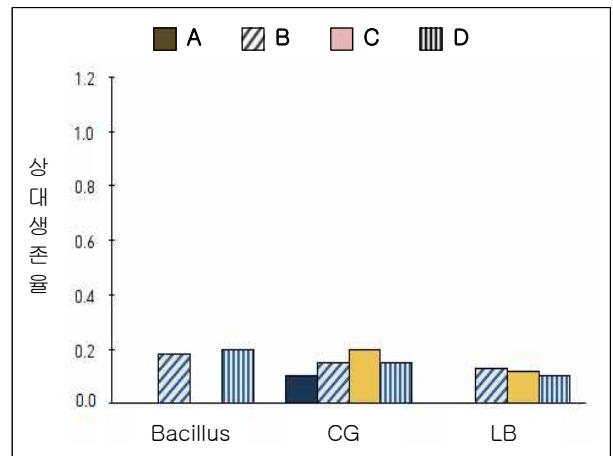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은 4가지 신약 (A, B, C, D)의 세균에 대한 억제효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그람 음성세균 3종과 그람 양성세균 3종에 각각 같은 양의 신약을 처리하고 세균의 상대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1> 그람 음성세균 3종(RS1, RS3, DH5a)의 상대생존율



<그림 2> 그람 양성세균 3종(Bacillus, CG, LB)의 상대생존율



- 주 1) 상대생존율 = $\frac{\text{신약처리를 한 세균의 생존율}}{\text{신약처리를 하지 않은 세균의 생존율}}$
 2) 상대생존율이 1보다 작으면 억제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상대생존율이 작을수록 억제효과가 큼.

<보 기>

- ㄱ. 4가지 신약 A, B, C, D는 모두 그람 음성세균 3종에 대해 억제효과가 있다.
- ㄴ. 그람 음성세균 RS3와 DH5a에 대한 신약 A, B, C, D의 억제효과 순서는 동일하다.
- ㄷ. Bacillus에 대한 감염 치료시 신약 A와 신약 C의 억제효과가 가장 크다.
- ㄹ. 4종의 신약은 전체적으로 그람 음성세균보다 그람 양성세균에 대한 억제효과가 더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표>는 A국, B국, C국의 무역관계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A국 기준 B국과의 무역

(단위: 억달러, %)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수출	금액	126	205	240	280
	총수출 대비 비중	23	14	10	7
수입	금액	186	318	484	643
	총수입 대비 비중	32	24	22	18

<표 2> B국 기준 C국과의 무역

(단위: 억달러, %)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수출	금액	77	415	1,005	1,800
	총수출 대비 비중	2	8	15	21
수입	금액	92	416	841	1,203
	총수입 대비 비중	2	8	14	21

<보 기>

- ㄱ. 2010년 A국의 총 수출액은 4,000억 달러이다.
 ㄴ. B국은 2000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ㄷ. 모든 조사연도에서 B국은 A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C국은 B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ㄹ. 2010년의 총 수출액은 B국이 A국보다 더 크다.
 ㄹ. 1990~2005년 기간에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보다 C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더 높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ㄹ

16. <표>는 지역 1~3과 의류점 사이의 이동시간 및 연간 의류비 지출 총액에 관한 자료이며, <정보>는 지역주민들의 구매확률 공식이다. 지역 1~3 부근에 의류점 A, B, C 세 곳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의류점 A, B의 연간 예상매출액은?

<표 1> 지역과 의류점 사이의 이동시간

	지역 1	지역 2	지역 3
의류점 A	10분	30분	20분
의류점 B	15분	20분	20분
의류점 C	30분	15분	30분

<표 2> 지역별 연간 의류비 지출 총액

	지역 1	지역 2	지역 3
의류비 지출총액	1억 2천만원	9천만원	2억원

<정 보>

- 특정지역 i 부근에 n개의 상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 i에 거주하는 고객이 n개의 상점 중의 하나인 상점 j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 P_{ij}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P_{ij} = \frac{\frac{1}{T_{ij}}}{\sum_{j=1}^n \left(\frac{1}{T_{ij}} \right)}$$

(T_{ij} 는 i 지역으로부터 j 상점까지의 이동시간)

	의류점 A	의류점 B
①	145백만원	110백만원
②	145백만원	130백만원
③	155백만원	110백만원
④	155백만원	145백만원
⑤	165백만원	145백만원

17. <표>는 2011년에 검거된 강력범죄자에 대한 자료이고, <보기>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강력범죄 검거단서

(단위: 명)

구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계	1,349	5,904	14,902	1,653
피해자신고	298	2,036	7,456	439
제3자신고	180	94	444	124
현행범체포	349	915	4,072	660
수사활동	333	2,323	2,191	250
자수	53	30	26	27
기타	136	506	713	153

<표 2> 연령별 강력범죄자 수

(단위: 명)

구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계	1,208	5,584	14,329	1,443
18세 이하	18	1,414	1,574	176
19~30세	173	1,543	3,596	153
31~40세	274	1,033	3,499	277
41~50세	350	781	3,060	498
51~60세	210	293	1,407	222
61세 이상	92	68	625	52
미상	91	452	568	65

<표 3> 전과횟수별 강력범죄자 수

(단위: 명)

구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계	1,208	5,584	14,329	1,443
전과 없음	322	1,445	4,139	377
1범	123	599	1,584	167
2범	91	424	1,096	137
3범	79	357	871	107
4범 이상	419	1,989	3,291	518
미상	174	770	3,348	137

— <보 기> —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강력범죄자는 모두 22,564명으로 나타났다. ㉠ 검거단서를 보면 살인과 방화는 현행 범체포가 각각 25.9%와 39.9%로 가장 높았다. ㉡ 강도는 수사활동에 의한 체포가 33.4%로 가장 높았고 강간은 피해자의 신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강간에서 피해자 신고율이 높은 이유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살인과 방화는 41~50세, 31~40세, 51~60세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강도는 19~30세가 2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8세 이하가 25.3%로 높게 나타났다. ㉣ 강력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살인, 강도, 방화는 4범 이상, 전과 없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강간은 전과없음, 4범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 전과 없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살인이었다.

① ㉠, ㉡

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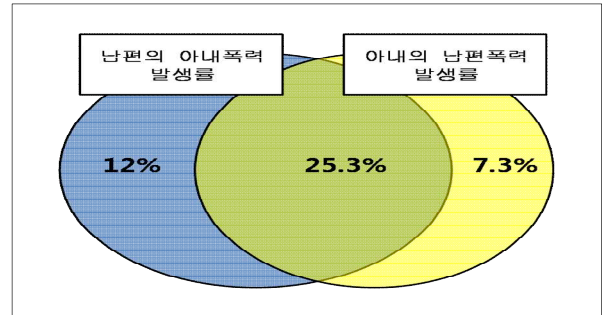
③ ㉠, ㉣

④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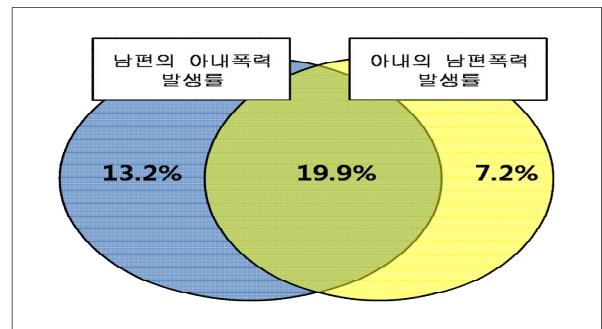
⑤ ㉡, ㉣

18. <그림>과 <표>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가정폭력 처분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1> 부부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2004년)



<그림 2> 부부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2007년)



<표> 가정폭력 처분결과

(단위: 명)

연도	총 접수 인원	기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구속	불구속						
2002	10,615	4,335	467	311	3,557	97	1,290	4,883	108	43
2003	4,781	913	202	83	621	22	1,016	2,830	31	2
2004	12,232	4,367	236	235	3,896	45	1,286	4,131	354	49
2005	6,079	1,166	114	88	964	14	947	3,859	82	11
2006	3,932	600	39	60	501	6	657	2,635	28	6
2007	3,174	443	69	374	374	7	611	2,102	9	2
2008	19,249	2,885	245	423	2,217	62	3,100	13,047	148	6
2009	19,191	2,697	217	418	2,062	55	3,055	13,257	117	10

주 1) 가정폭력행위자 기소율(%) = $\frac{\text{가정폭력행위로 기소된 사람수}}{\text{총 접수인원}} \times 100$

2) 가정폭력행위자 구속률(%) = $\frac{\text{가정폭력행위로 구속된 사람수}}{\text{총 접수인원}} \times 100$

— <보 기> —

- ㄱ. 2007년 부부폭력발생률은 2004년보다 4.3% 하락하였다.
 ㄴ. 2007년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과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 모두 2004년보다 하락하였다.
 ㄷ. 2004년 가정폭력행위자 기소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다.
 ㄹ. 2005년 이후 가정폭력행위자 구속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19. <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 체	24.2	24.0	75.0	73.6
100만원 미만	6.1	6.3	35.3	36.0
100~200만원 미만	11.0	10.3	55.1	50.7
200~300만원 미만	18.0	17.0	72.9	69.8
300~400만원 미만	24.6	24.0	82.6	79.8
400~500만원 미만	31.0	29.8	86.5	84.5
500~600만원 미만	37.2	36.2	88.9	87.1
600~700만원 미만	42.0	40.4	90.1	89.6
700만원 이상	51.4	48.4	91.1	89.1

<표 2> 성별 및 성적 순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 체	24.2	24.0	75.0	73.6
남 학 생	24.1	23.4	74.1	72.4
여 학 생	24.3	24.6	76.0	74.9
상위 10%이내	31.9	31.7	87.0	85.3
10 ~ 30%	28.3	28.2	84.9	83.9
31 ~ 60%	23.2	23.3	75.3	73.8
61 ~ 80%	18.4	18.2	60.7	59.8
하위 20%이내	13.9	13.6	50.4	48.8

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전체(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한 평균금액임.

2) 사교육 참여율 = $\frac{\text{사교육 참여학생수}}{\text{전체 학생수}} \times 100$

—<보 기>—

- ㄱ. 학생 수가 변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 총 사교육비는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ㄴ. 가구의 소득 수준과 성적 순위와 관계없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
- ㄷ. 학생 수와 남녀 성비가 변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에 비해 2010년 남학생의 총 사교육비는 감소하였고 여학생의 총 사교육비는 증가하였다.
- ㄹ. <표>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2011년 사교육비 통계에서 학생 수의 변동 없이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고 사교육참여율이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2011년 우리나라 학생들의 총 사교육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 ㅁ.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10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 <표>는 BRICs와 G6의 2010~2050년 GDP를 추정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0~2050년 BRICs의 추정GDP

(단위: 10억달러)

연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BRICs
2010	668	2,998	929	847	5,441
2015	952	4,754	1,411	1,232	8,349
2020	1,333	7,070	2,104	1,741	12,248
2025	1,695	10,213	3,174	2,264	17,345
2030	2,189	14,312	4,935	2,980	24,415
2035	2,871	19,605	7,854	3,734	34,064
2040	3,740	26,439	12,367	4,467	47,013
2045	4,794	34,799	18,847	5,156	63,596
2050	6,074	44,453	27,803	5,870	84,201

<표 2> 2010~2050년 G6의 추정GDP

(단위: 10억달러)

연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G6
2010	1,622	2,212	1,337	4,601	1,876	13,271	24,919
2015	1,767	2,386	1,447	4,858	2,089	14,786	27,332
2020	1,930	2,524	1,553	5,221	2,285	16,415	29,928
2025	2,095	2,604	1,625	5,567	2,456	18,340	32,687
2030	2,267	2,697	1,671	5,810	2,649	20,833	35,927
2035	2,445	2,903	1,708	5,882	2,901	23,828	39,668
2040	2,668	3,147	1,788	6,039	3,201	27,229	44,072
2045	2,898	3,381	1,912	6,297	3,496	30,956	48,940
2050	3,148	3,603	2,061	6,673	3,782	35,165	54,433

주 1) BRICs: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의 영문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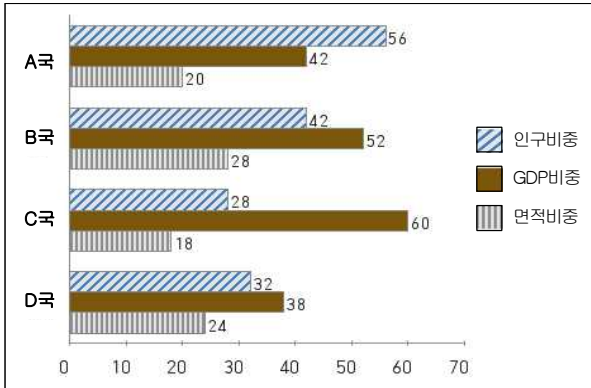
2) G6: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3) 2010년 GDP는 실제 측정치임.

- ① 인도의 GDP는 2035년이면 일본보다 더 커질 것이며, 중국의 GDP는 2045년이면 미국보다 커질 것이다.
- ② 2025년 BRICs의 GDP가 G6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며, 2040년이 되면 BRICs의 GDP가 G6를 앞서는 것이다.
- ③ 중국의 GDP는 2010년에 독일을 넘어섰고, 2020년에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 ④ BRICs와 G6 중 2010~2050년 동안 GDP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 ⑤ 2010년 G6 중 GDP가 세 번째로 큰 국가는 독일이며, 2050년 BRICs와 G6 중 GDP가 세 번째로 큰 국가는 인도로 예상된다.

21. <그림>과 <표>는 2011년 국가별 수도권 지역의 인구·GDP·면적 비중 및 2008~2011년 국가별 인구·GDP·면적 구성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국가별 수도권 지역의 인구·GDP·면적 비중(2011년 기준)
(단위: %)



<표> 2008~2011년 국가별 인구·GDP·면적 구성 추이
(단위: 만명, 백억달러, 천km²)

구분	인구				GDP				면적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A국	4,400	4,500	4,550	4,700	2,850	2,880	2,790	2,880	354
B국	2,500	2,520	2,550	2,450	1,950	1,990	2,020	2,010	290
C국	23,500	23,400	23,200	23,150	10,930	10,980	11,040	11,030	7,800
D국	1,520	1,550	1,565	1,620	980	970	960	940	3,200

주) 면적은 2011년 수치임.

— <보 기> —

- ㄱ. 4개 국가 중 2011년 수도권의 면적이 가장 작은 국가는 수도권 인구수 또한 가장 적다.
 ㄴ. 2011년 C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GDP 차이는 2011년 B국의 GDP보다 크다.
 ㄷ. 2008년 대비 2011년 인구가 증가한 두 국가의 2011년 수도권 인구수의 차이는 2,500만명 이상이다.
 ㄹ. 2008~2011년 동안 인구와 GDP의 증감 방향이 일치하는 국가의 2011년 비수도권 면적은 국토면적이 가장 큰 국가의 수도권 면적의 1/6보다 작다.
 ㅁ. 2011년 비수도권 면적이 가장 작은 국가의 2010년 GDP는 2009년에 비해 약 1.5%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2. <표>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경영 및 기술지도사 분야별 등록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1989~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경영지도사	인적관리	1,309	26	43	21	24	25	14	45	41	19	16	37	1,620
	재무관리	2,874	299	406	295	386	348	336	268	253	80	46	43	5,634
	생산관리	664	10	15	19	19	9	11	37	31	23	10	20	868
	마케팅	1,225	44	58	42	31	23	22	59	78	40	80	155	1,857
	소계	6,072	379	522	377	460	405	383	409	403	162	152	255	9,979
기술지도사	기계분야	713	29	40	53	30	28	49	49	4	3	2	5	1,005
	금속분야	238	6	7	6	5	2	3	5	3	1	3	3	282
	전기전자	597	3	1	5	12	3	4	9	-	-	-	-	634
	섬유분야	117	1	-	1	-	-	-	-	-	1	1	-	121
	화학분야	297	3	5	3	4	4	4	5	2	-	-	1	328
	생산관리	702	17	29	25	33	22	33	22	46	4	6	3	942
	정보처리	450	8	21	14	7	7	10	10	11	1	1	2	542
	환경	1	-	-	-	-	-	-	-	-	1	-	1	3
	자동차	44	-	-	-	-	-	-	-	-	-	-	-	44
	생명공학	-	-	-	-	-	-	-	-	-	-	-	1	1
	기타	340	-	-	-	-	-	-	-	-	-	-	-	340
	소계	3,499	67	103	107	91	66	103	100	66	11	13	16	4,242
	계	9,571	446	625	484	551	471	486	509	469	173	165	271	14,221

주) 한 개인이 하나의 지도사 자격증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함.

<표 2> 경영 및 기술지도사 지역별 등록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대전충남	주소불명	계
5,277	664	610	389	2,125	724	72	112	187	338	27	464	3,232	14,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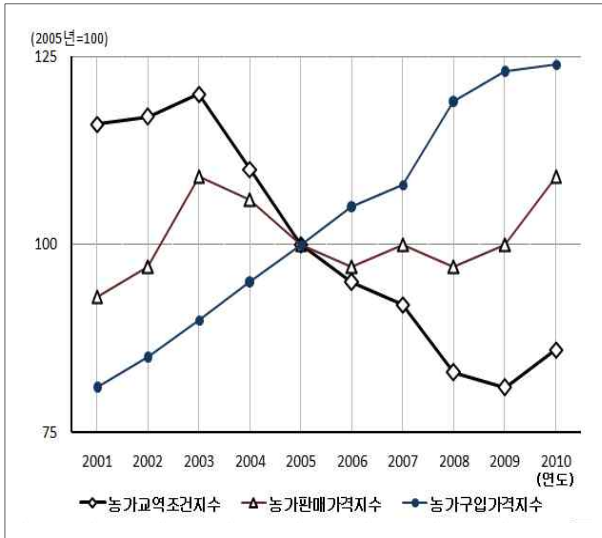
— <보 기> —

- ㄱ. 서울지역의 경영지도사가 전체 경영지도사의 최소 5% 이상을 차지한다.
 ㄴ. 1989년 이후 한 해라도 경영 및 기술지도사가 등록되지 않은 분야는 기타를 제외하고 6개 분야이다.
 ㄷ. 2000년 이후 기술지도사 대비 경영지도사의 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0년이고, 그 비율은 10% 이하이다.
 ㄹ. 2010년에 등록자가 있는 분야 중 2000년 대비 2010년 등록자의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의 누적등록자가 전체 경영 및 기술지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지역의 경영 및 기술지도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그림>은 농가교역조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농가교역조건지수 추이



- 주 1) 농가교역조건지수 =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 × 100
 2)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채산성이 호전되고, 농가교역지수가 100미만이면 채산성이 악화됨.

-<보 기>

- ㄱ.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채산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
- ㄴ. 2001년 이후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증가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 ㄷ.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증가율이 20%이고,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증가율이 10%이면 채산성은 호전된다.
- ㄹ.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하락하면 채산성은 악화된다.

- ① $\neg$
② $\neg, \perp$
③ $\perp, \bot$
④ $\perp, \bot, \vdash$
⑤ $\neg, \perp, \bot, \vdash$

24. <표>는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C와 D에 해당하는 업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1〉 업종별 업소수 분포

(단위: 개소)

업종	업소수	업종	업소수	업종	업소수
A	8,168	무도확원	1,119	빙상장	41
수영장	574	B	386	D	82
체육도장	13,263	C	19	종합체육시설	212
체력단련장	6,240	자동차경주장	2	썰매장	126
당구장	25,317	요트장	15	E	66

〈표 2〉 업종별 면적 분포

(단위: m^2)

업종	면적	업종	면적	업종	면적
A	11,729,673	무도학원	143,352	빙상장	339,995
수영장	1,257,504	B	360,269,461	D	2,544,460
체육도장	2,527,393	C	26,092,984	종합체육시설	890,910
체력단련장	2,051,405	자동차경주장	518,337	썰매장	930,804
당구장	4,281,900	요트장	120,889	E	27,775

— <정 보>

- A~E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프연습장, 골프장, 무도장, 스키장, 승마장이다.
- 업소수 당 평균면적은 수영장이 무도장보다 넓다.
- 골프연습장의 업소수는 체력단련장과 승마장의 업소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
- 업소수 당 평균면적이 가장 넓은 업종부터 나열하면 스키장-골프장-자동차경주장 순이다.

C

D

- | | | |
|---|-----|-------|
| ① | 스키장 | 승마장 |
| ② | 스키장 | 무도장 |
| ③ | 골프장 | 승마장 |
| ④ | 골프장 | 골프연습장 |
| ⑤ | 골프장 | 무도장 |

25. <표>는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현황

(단위: %)

업종	수수료율	업종	수수료율
주유소	1.5	홈쇼핑·인터넷판매	1.3~3.5
종합병원	1.5~2.7	서점	2.5~3.6
할인점	1.7~2.7	의류 및 직물업체	1.8~3.6
백화점	1.5~3.5	자동차부품 및 정비	2.05~3.6
편의점	2.0~2.69	숙박	2.1~3.6
면세점	1.9~3.6	이·미용실	2.5~3.6
슈퍼마켓	1.5~3.3	패션잡화	2.0~3.6
골프장	1.5~3.5	교육기관	1.5~3.6
항공사	1.5~3.0	학원	1.5~3.6
대중교통	1.2~3.35	귀금속	2.2~3.6
일반음식점	1.85~3.28	유흥 및 사치업	2.7~4.5

- 동일업종 내 최고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율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홈쇼핑·인터넷판매이다.
- 최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최저수수료율도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높다.
- 동일업종 내 최저수수료율 대비 최고수수료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의 최저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낮다.
- 가맹점 간 수수료율은 최대 3.3%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 동일업종 내 평균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업종과 가장 높은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의 차이는 2배가 넘는다.

26. <표>는 우리나라 1인당 식품류별 섭취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기간동안 인구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표> 우리나라의 1인당 식품류별 섭취량

(단위: g)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5~2008 평균
곡류	412	414	412	411.5
채소류	399	421	411	413
과실류	123	115	123	120.25
육류	100	105	112	107
낙농품	173	174	177	173.5
어패류	109	119	115	112.5
해조류	26	36	39	36
유지류	51	50	50	46.25

- 2008년 1인당 곡류섭취량은 2007년보다 적다.
- 2005~2008년 동안 곡류와 어패류의 1인당 섭취량 증감방향은 일치한다.
- 유지류의 경우 2005년 대비 2006년 1인당 섭취량 감소율보다 2007년 대비 2008년 1인당 섭취량 감소율이 더 크다.
- 2005년 대비 2008년 1인당 식품류별 섭취량 증가율은 채소류가 해조류보다 크다.
- 낙농품과 육류의 1인당 섭취량 격차는 2005~200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7. <표>는 연말정산을 위한 A와 B의 소득공제자료이고 A의 연간 총급여는 1,600만원, B의 연간 총급여는 4,000만원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표> 이외의 소득공제항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A와 B의 소득공제자료

각종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한도액	지출액	
			A	B
보험료		전액	40만원	70만원
의료비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	55만원	100만원
	㉡ 일반의료비	700만원	0	160만원
	계(㉠+㉡)		55만원	260만원
교육비	㉢ 소득자본인	전액	300만원	70만원
	㉣ 취학전아동	1인당 300만원	0	0
	㉤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0	26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0	1,160만원
	계(㉢+㉣+㉤+㉥)		300만원	1,490만원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근로자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350만원	620만원
	㉧ 현금영수증		30만원	190만원
	㉨ 학원비 지로납부		20만원	150만원
	㉩ 직불카드		100만원	240만원
	계(㉦+㉧+㉨+㉩)		500만원	1,200만원

<정 보>

- 소득공제금액 = 보험료 소득공제금액 + 교육비 소득공제금액 + 의료비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보험료 소득공제금액: 보험료 지출액 전액
- 교육비 소득공제금액: 각 교육비 지출액의 합
- 의료비 소득공제금액:
 - ㉠ < 총급여의 3% : ㉠-(총급여의 3%-㉡)
 - ㉡ ≥ 총급여의 3% : ㉡-[(㉡-총급여의 3%)와 700만원 중 작은 금액]
 -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 일반의료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 + ㉣
 -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 × 20%
 -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 × 25%
 -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사용액, ㉢ 학원비 지로납부액, ㉣ 직불카드 사용액)
 -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이란 0과 [(㉠+㉢+㉣) - (근로자의 총급여 × 25%)] 중 큰 금액을 의미함.

<보 기>

- ㄱ. A의 의료비 소득공제금액은 7만원이다.
- ㄴ. B의 의료비 소득공제금액은 150만원 이상이다.
- ㄷ. 중학생 자녀 1명, 대학생 자녀 1명이 있는 B의 교육비 소득공제금액은 1,230만원이다.
- ㄹ. A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20만원이다.
- ㅁ. B의 총 소득공제금액은 1,482만원이다.

- ㄱ,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ㄱ, ㄷ, ㄹ, ㅁ
- ㄴ, ㄷ, ㄹ, ㅁ

28. <표>는 A제품과 B제품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판매가격 및 원가

(단위: 원)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
A	1,000	800	80,000
B	1,200	900	105,000

<정 보>

-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하는 것이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금액이다.
-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변동원가+고정원가)이 일치하여 이익이 0인 점을 의미하며 손익분기점보다 낮은 판매량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 공헌이익률(%) = $\frac{\text{단위당 공헌이익}}{\text{단위당 판매가격}} \times 100$
- 목표판매량(개) = $\frac{\text{고정원가} + \text{목표이익}}{\text{단위당 공헌이익}}$

<보 기>

- ㄱ. 판매량이 300~400개인 구간에서는 A제품과 B제품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 ㄴ. 손익분기점에서 A제품의 매출액이 B제품 매출액보다 적다.
- ㄷ. A제품의 판매가격이 B제품과 동일할 경우, A제품의 공헌이익률은 B제품의 공헌이익률보다 높다.
- ㄹ. 목표이익이 동일하다면 A제품의 목표판매량은 항상 B제품의 목표판매량보다 적다.

- ① ㄱ, ㄴ
③ ㄱ, ㄷ
⑤ ㄴ, ㄹ

- ② ㄱ, ㄷ
④ ㄴ, ㄷ

29. <표>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보기>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단위사업	세부사업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경상사업	남북교류협력지원	인적왕래지원	1,698	2,721	-	-	30	4,449
		사회문화협력지원	6,908	3,847	3,029	2,119	2,587	18,490
		교역경협보험	-	-	-	-	4,377	4,377
		소 계	8,606	6,568	3,029	2,119	6,994	27,316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26,918	18,241	2,152	1,987	95	49,393
		인도적지원사업(무상)	227,193	59,682	29,367	19,196	10,176	345,614
		경협기반조성(무상)	172,540	110,074	41,461	17,676	12,435	354,186
		소 계	426,651	187,997	72,980	38,859	22,706	749,193
	합 계		435,257	194,565	76,009	40,978	29,700	776,509
	용자사업	인도적지원사업(용자)	인도적지원사업(용자)	140,479	12	-	-	-
남북교류협력지원			교역경협자금대출	56,631	10,807	15,416	-	-
경수로사업		경협기반조성(유상)	83,369	25,820	8,596	3,703	5,489	126,977
		경수로사업대출	-	-	-	-	-	-
합 계		280,479	36,639	24,012	3,703	5,489	350,322	
총 계		715,736	231,204	100,021	44,681	35,189	1,126,831	

<보 기>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액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 2008~2011년 중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액 감소율이 가장 큰 해에 집행액이 증가한 세부사업은 없다. 한편, (나) 2008년 이후 경상사업 대비 용자사업 집행액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이고, 2007~2011년에 용자사업 집행액의 합계는 경상사업 집행액 합계의 50% 미만이다. (다) 단위사업 남북교류협력지원(경상+용자)의 집행액은 매년 인도적지원사업(무상+용자)의 집행액보다 적다. 경수로 사업은 2007년 이후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라) 2007년에 집행액이 없는 세부사업을 제외하고, 2007년 집행액이 2007~2011년 집행액 합계의 1/3 이하인 세부사업은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30. 국회예산정책처 김 사무관은 한국경제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가 아닌 것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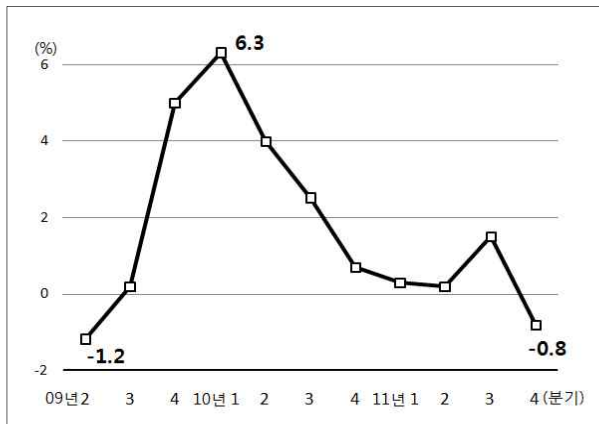
- 2011년 4분기 가계 평균 흑자율은 25.2%를 기록했다. 흑자율은 21~2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4분기에 25.2%로 상승했다.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은 77~78%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4분기에 74.8%로 하락했다.
- 2011년 4분기 실질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음(-)의 값을 기록했다.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가정용품(-8.2%), 교통(-7.8%), 오락문화(-3.6%) 등의 분야에서 감소율이 컸다.
- 2012년 1분기 들어서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백화점 1월 매출은 설 연휴가 있었음에도 1년 전보다 4.1% 감소하였고, 대형마트 2월 매출은 지난해보다 영업일이 늘었는데도 1.7%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판매도 2011년 10월 이후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①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 동향(201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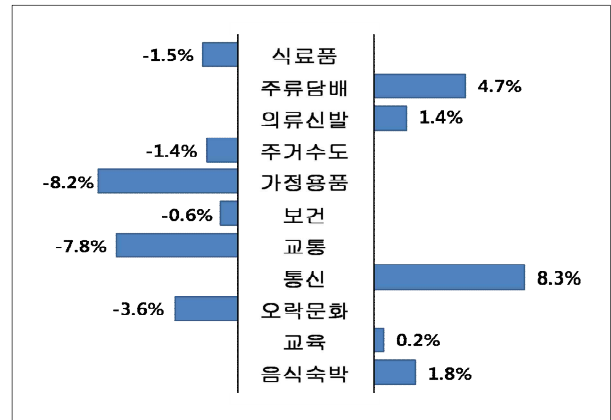
(단위: 개, %)

지출목적별 부문	품목수	가중치	동락률	
			전월비	전년 동월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4	135.9	-0.2	3.6
주류 및 담배	8	12.4	0.9	2.2
의류 및 신발	34	62.3	0.8	5.1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21	169.7	0.7	5.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	37.9	0.9	4.0
보 건	28	73.1	0.4	2.0
교 통	32	109.2	1.1	5.0
통 신	8	57.8	0.0	-3.5
오락 및 문화	64	53.0	-0.1	0.6
교 육	20	114.1	0.3	1.7
음식 및 숙박	42	120.4	0.1	2.5
기타상품 및 서비스	41	54.2	0.4	2.6

② 2011년 4분기 실질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③ 2011년 4분기 지출목적별 실질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④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

(단위: 천원, %, %p)

구 분	2010년				2011년			
	4/4분기	연간	3/4분기	4/4분기	연간	4/4분기	연간	3/4분기
가처분소득	2,966.4	2,957.7	3,151.3	3,180.1	3,119.3	2,966.4	2,957.7	3,151.3
소비지출	2,308.4	2,286.9	2,443.6	2,379.6	2,392.7	2,308.4	2,286.9	2,443.6
흑 자 액	658.0	670.8	707.7	800.5	726.6	658.0	670.8	707.7
흑 자 율	22.2	22.7	22.5	25.2	23.3	22.2	22.7	22.5
평균소비성향	77.8	77.3	77.5	74.8	76.7	77.8	77.3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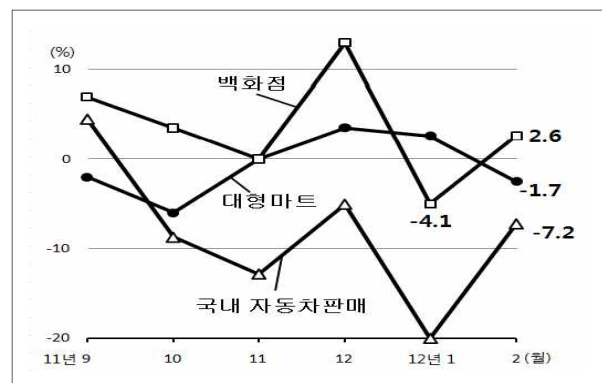
주) 가처분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 (흑자액/가처분소득) × 100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가처분소득) × 100

⑤ 주요 내수 부분의 매출증가율(전년동월 대비)



31. <표>는 한국대학교 단과대학 교수들의 2009학년도 연구실적을 조사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표>의 A~F대학 중 경영대학을 고르면?

<표> 한국대학교 단과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

(단위: 명, 편, 권)

	전임교수	학술논문	학술서적
A대학	16	31	29
B대학	27	82	26
C대학	85	145	()
D대학	49	112	64
E대학	82	()	11
F대학	121	460	13

주 1) 한국대학교에는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자연대학만 있음.

2) ()는 누락된 수치를 나타냄.

<정 보>

- 학술논문수는 간호대학이 가장 적고, 공과대학이 가장 많다.
- 학술서적수는 자연대학이 가장 적고, 사범대학이 가장 많다.
- 교수당 학술논문수는 인문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이 1인당 3편을 넘지 못한다.
- 교수당 학술서적수는 간호대학과 사범대학이 1인당 1권 이상이다.

- ① B대학
③ D대학
⑤ F대학

- ② C대학
④ E대학

32. <표>는 제조업의 업종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제조업 업종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

(단위: %)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제조업 (평균)	6.2	6.9	6.0	7.0	417.1	545.4
식음료·담배	7.2	6.7	7.2	7.9	472.1	438.6
섬유·의복·가죽	5.4	5.5	4.2	4.8	360.8	415.2
목재·종이·인쇄	6.5	4.9	5.3	3.6	258.4	236.0
석유화학	6.2	6.9	5.5	6.9	442.5	672.5
비금속광물제품	13.0	13.5	11.2	12.1	570.5	645.3
금속제품	6.4	7.5	5.8	6.8	350.4	466.7
기계·전기전자	5.8	6.8	6.0	6.3	437.2	584.4
운송장비	5.3	6.5	6.1	8.8	419.1	560.3
가구 및 기타	5.7	5.0	4.6	4.7	347.0	319.9

<정 보>

- 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해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left(\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right)$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란 기업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이다. $\left(\frac{\text{세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right)$
-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left(\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right)$

<보 기>

- ㄱ. 2010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업종은 식음료·담배, 목재·종이·인쇄, 가구 및 기타 업종이었다.
- ㄴ. 전년 대비 2010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운송장비이고, 그 다음으로 금속제품, 석유화학의 순이다.
- ㄷ. 2010년 식음료·담배 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9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상승하였다.
- ㄹ. 2010년 제조업 전체의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대비 약 30% 상승하였으며, 이자보상비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4개 업종은 석유화학, 금속제품, 기계·전기전자, 섬유·의복·가죽이다.
- ㅁ. 2009년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이 가장 큰 업종은 목재·종이·인쇄이다.

-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ㅁ
⑤ ㄷ, ㄹ, ㅁ

- ② ㄱ, ㄷ, ㄹ
④ ㄴ, ㄹ, ㅁ

3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와 같은 조사결과를 얻었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거짓응답은 없다고 가정한다.)

<설문조사>

- 1) 주사위를 던져 4 이하가 나오면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질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답]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2) 주사위를 던져 5 이상이 나오면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질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가?
[답]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 보>

-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2,000명이 ① 그렇다
- 3,000명이 ②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보 기>

- 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비율을 p 라 할 때 총 응답자 중 '①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p/3+1/3$ 로 추정할 수 있다.
- ㄴ. 위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실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비율은 20%로 추정할 수 있다.
- ㄷ. 위 조사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 중 실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비율은 $2/5$ 로 추정할 수 있다.
- ㄹ. 위 조사에서 '②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 실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비율은 $1/9$ 로 추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4. <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격으로 요양기관별 요양급여실적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요양기관별 요양급여 청구건수

(단위: 천건)

연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합계
2000	12,997	18,192	11,304	188,376	21,059	251,928
2002	14,980	21,903	14,290	232,096	25,710	308,979
2004	15,584	25,177	18,242	247,545	30,359	336,907
2006	17,014	28,466	21,402	274,453	35,082	376,417
2008	19,085	33,391	26,601	468,199	80,279	627,555
2010	26,088	39,075	34,437	504,418	90,060	694,078

<표 2>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요양기관별 진료일수

(단위: 천일)

연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합계
2000	245,949	212,716	93,419	844,444	49,168	1,445,696
2002	65,188	78,438	54,536	487,724	60,162	746,048
2004	70,059	97,702	64,904	494,764	70,008	797,437
2006	78,829	115,632	79,044	536,855	80,968	891,328
2008	91,768	136,202	108,896	555,985	85,443	978,294
2010	112,458	157,168	143,598	605,932	94,808	1,113,964

<표 3>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단위: 억원)

연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합계
2000	24,683	22,566	9,833	46,851	4,793	108,726
2002	26,481	23,794	11,815	59,638	7,200	128,928
2004	32,163	31,410	16,205	61,110	9,014	149,902
2006	41,941	41,168	23,912	73,878	11,296	192,195
2008	53,289	53,242	39,165	82,469	12,594	240,759
2010	71,091	65,194	57,428	95,547	15,478	304,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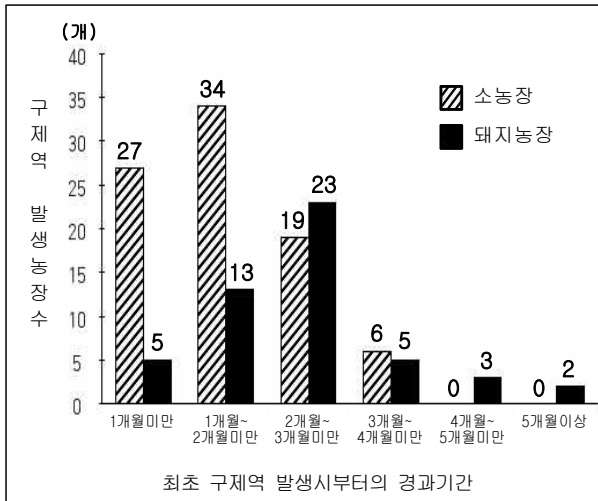
<보 기>

- ㄱ. 2000년 대비 2010년 청구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한의원이다.
- ㄴ. 2000년 종합병원의 청구건당 평균 진료일수는 병원보다 많으며, 2010년에는 두 기관 모두 4일 이상이다.
- ㄷ. 2002년 대비 2010년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종합병원이다.
- ㄹ. 2004년과 2006년의 전체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면 2004년이 더 높게 나타난다.
- ㅁ. 2000년 대비 2010년 전체 청구건수 증가율과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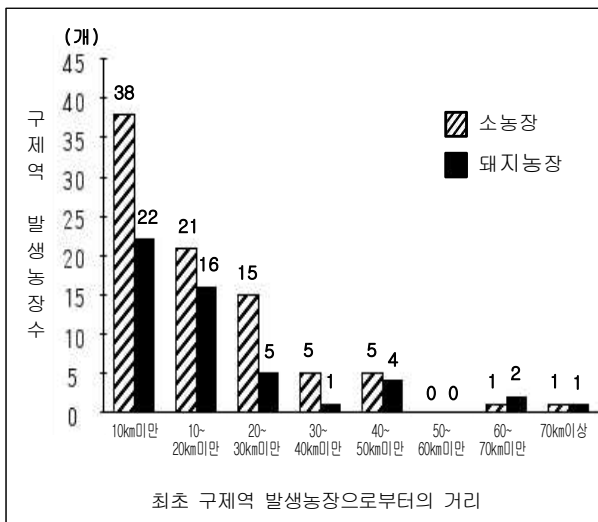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5. <그림>은 A지역에서 돼지와 소의 구제역이 발생한 137개 농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돼지와 소를 동시에 사육하는 농장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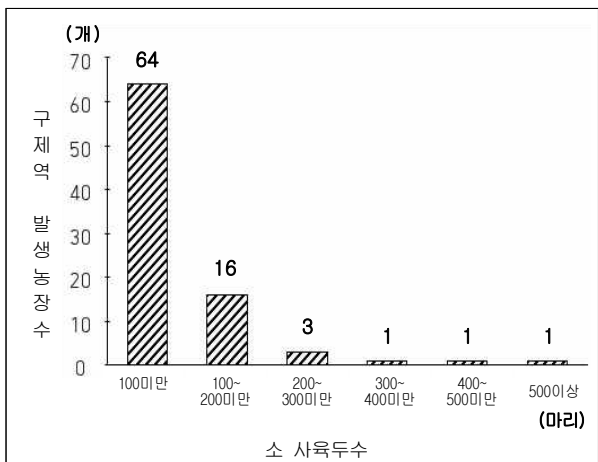
<그림 1> 경과기간별 구제역 발생농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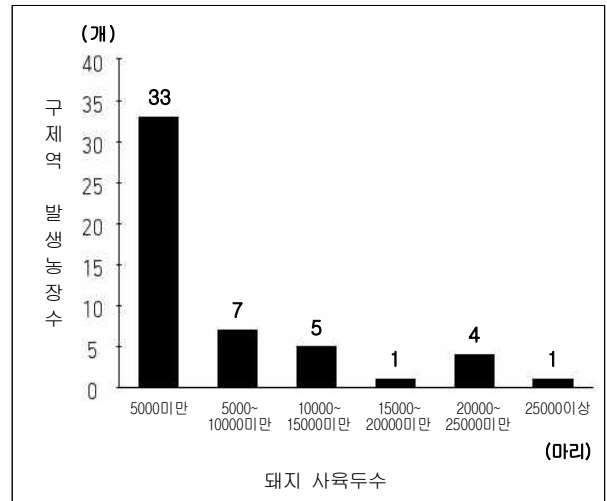
<그림 2> 거리별 구제역 발생농장수



<그림 3> 소 사육두수에 따른 구제역 발생농장수



<그림 4> 돼지 사육두수에 따른 구제역 발생농장수



<보 기>

- ㄱ. 소를 사육하는 농장의 수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의 수보다 많다.
 ㄴ. 최초 구제역 발생시부터 2개월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의 수는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돼지농장 수의 60% 이상이다.
 ㄷ.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10km 미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소농장 수는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소농장 수의 40% 이상이다.
 ㄹ. 소농장과 돼지농장 모두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구제역 발생 농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ㅁ. 구제역에 감염된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를 비교하면 소가 돼지의 약 1.7배이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36. <표1>과 <표2>는 2002년 말과 2007년 말 기준으로 세계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산업별 잔고를 나타낸 것이며, <정보>는 한국 FDI잔고의 증가분을 3개 효과로 분해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세계 산업별 FDI 잔고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년말 (기준년도)	2007년말 (비교년도)
1차산업	448,101	1,172,436
제조업	1,622,134	3,050,407
서비스업	3,964,078	9,135,585
총계	6,034,313	13,358,428

<표 2> 한국 산업별 FDI 잔고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년말 (기준년도)	2007년말 (비교년도)
1차산업	410	425
제조업	37,117	54,479
서비스업	36,926	66,977
총계	74,453	121,881

—<정 보>—

- 한국의 산업별 FDI 잔고 증가분을 분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들을 정의한다.

X_{iw} : 기준년도말 세계 i산업 FDI 잔고

X_w : 기준년도말 세계 FDI 총계, 즉 $X_w = \sum_i X_{iw}$

X_{ik} : 기준년도말 한국 i산업 FDI 잔고

X_k : 기준년도말 한국 FDI 총계, 즉 $X_k = \sum_i X_{ik}$

r_{ik} : 기간 중 (기준년도 $\Rightarrow$ 비교년도) 한국 i산업 FDI 잔고 X_{ik} 의 증가율

r_w : 기간 중 세계 FDI 총계 X_w 의 증가율

r_{iw} : 기간 중 세계 i산업 FDI 잔고 X_{iw} 의 증가율

- 한국 i산업 FDI의 증감액은 $X_{ik} \cdot r_{ik}$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분해된다.

$$X_{ik} \cdot r_{ik} = X_{ik} \cdot r_w + X_{ik}(r_{iw} - r_w) + X_{ik}(r_{ik} - r_{iw})$$

위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X_{ik} \cdot r_w$)은 세계성장효과를 나타내며, 우변의 두 번째 항 $X_{ik}(r_{iw} - r_w)$ 은 산업구성효과를 나타낸다. 우변의 마지막 항 $X_{ik}(r_{ik} - r_{iw})$ 는 경쟁력효과이다.

—<보 기>—

- 가. 한국 제조업의 산업구성효과는 음(-)의 값을 갖는다.
 나. 한국의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효과는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다. 한국 서비스업의 산업구성효과는 1차산업의 산업구성효과보다 크다.
 라. 한국 제조업의 세계성장효과는 1차산업의 세계성장효과보다 크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37. <표>는 전통사찰 지정현황 등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표 1> 전통사찰 지정현황(2011년 9월)

(단위: 개)

시도	사찰수	종 단					
		갑	을	병	정	무	기
서울	58	43	5		3	1	6
부산	30	(가)		2	2	1	2
대구	18	17	1				
인천	8	7	1				
광주	5	5					
대전	4	1	1		2		
울산	11	11					
경기	(나)	83	9	2	1		5
강원	47	43	3				1
충북	82	48	23	3	4		4
충남	81	66	(다)		3		3
전북	114	71	37		2		4
전남	95	79	10	2		1	3
경북	176	153	5	6	2	1	9
경남	97	91	1	3	2		
제주	15	8	2		1		4
계	941	749	107	(라)	22	4	41

<표 2> 연도별 전통사찰 지정건수 변동추이

(단위: 개)

연도	1987년 이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사찰수	18	748	16	2	6	26	4	1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찰수	4	10	1	9	1	6	10	15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년말 총계
사찰수	17	15	11	7	4	4	2	-1	936

주) 위 수치는 각 연도 전통사찰의 순증감(신규지정-지정폐지)을 연도 말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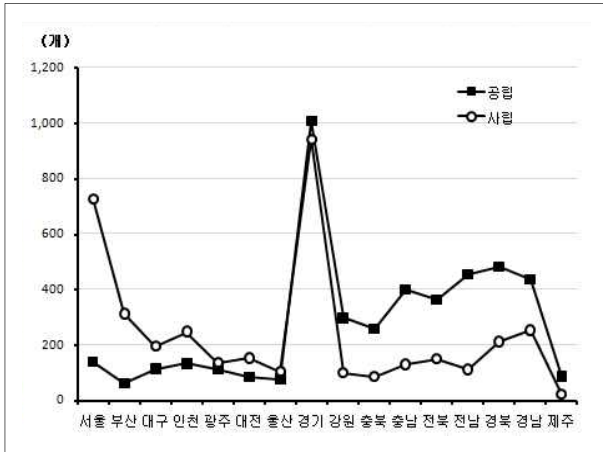
—<보 기>—

- ㄱ. (가)~(라)의 합은 145 이상이다.
 ㄴ. '을' 종단의 사찰이 있는 지역 중 서울, 대전,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을' 종단의 사찰 수가 두 번째로 많다.
 ㄷ. 2011년(1월~9월)에 전통사찰로 신규지정된 곳은 5곳이다.
 ㄹ. 2000년 이후 전통사찰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0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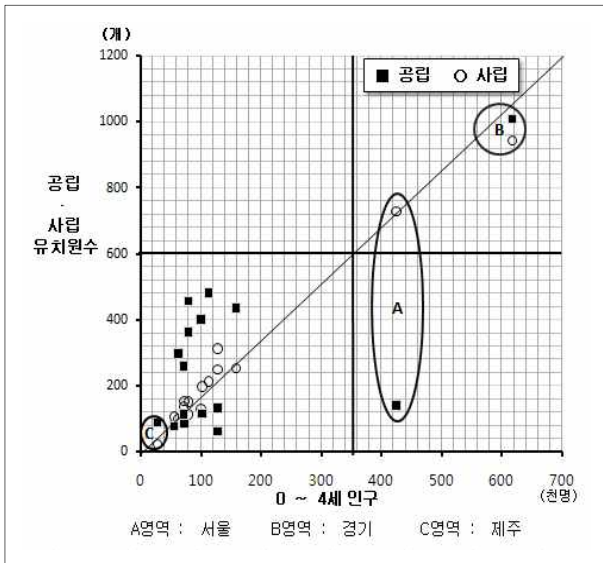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38. <그림>은 2010년 지역별 0~4세 영유아 인구나 공립·사립 유치원 수를 대조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1> 지역별 공립·사립 유치원 수



<그림 2> 지역별 0~4세 인구 및 유치원 수



주) 유치원 1개당 평균수용인원 = $\frac{0\sim 4\text{세 인구}}{\text{공립} + \text{사립 유치원수}}$

<보 기>

- ㄱ. 공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이다.
 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의 격차가 가장 큰 두 지역은 서울과 전남이고, 가장 작은 두 지역은 광주와 울산이다.
 ㄷ. 서울과 각 광역시의 경우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 수가 많은 반면, 다른 지역은 그 반대이다.
 ㄹ. 경기의 유치원 1개당 평균수용인원은 300명 이상이다.
 ㄹ. 제주는 서울과 경기보다 유치원 1개당 평균수용인원이 많다.

- ① ㄱ, ㄹ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ㄹ

39. <표>는 타이타닉호 승선자의 생존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타이타닉호 승선자의 사망/생존자 수와 생존율

(단위: 명, %)

	어린이					어른				생존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생존	사망	생존	사망	생존	사망	생존	사망		
1등실	5	0	1	0	57	118	140	4	62.2	
2등실	11	0	13	0	14	154	80	13	41.4	
3등실	13	35	14	17	75	387	76	89	25.2	
승무원	0	0	0	0	192	670	20	3	24.0	

- ① 3등실 어린이의 생존율이 3등실 어른의 생존율보다 높다.
 ② 남자 승무원의 생존율은 2등실 남자의 생존율보다 높다.
 ③ 남자 승무원과 여자 승무원의 생존율은 각각 3등실 남자와 3등실 여자의 생존율보다 높다.
 ④ 승선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등실에서 가장 높고 3등실, 2등실, 그리고 승무원의 순서이다.
 ⑤ 전체 승선자의 생존율은 35% 이하이다.

40. <표>는 2011년 10월 국내에 입국한 10개 국가 외국인의 입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외국인 입국 목적별 인원

(단위: 명)

국 적	관광	상용	공용	기타	합계	전년동기 (2010년 10월)
네덜란드	14,412	474	16	4,376	19,278	19,108
뉴질랜드	17,205	494	6	3,869	21,574	21,232
말레이시아	96,722	878	24	17,642	115,266	74,594
미 국	411,979	9,561	13,316	125,204	560,060	558,640
영 국	70,723	3,188	48	14,367	88,326	82,386
인 도	16,758	20,619	97	40,028	77,502	74,843
일 본	2,588,167	15,800	813	47,447	2,652,227	2,518,314
중 국	1,097,050	83,217	2,619	596,582	1,779,468	1,619,944
캐나다	70,145	921	44	31,832	102,942	100,413
필리핀	70,728	2,295	684	205,987	279,694	254,162

— <보 기> —

- ㄱ. 제시된 10개국 중 전년동기 대비 입국인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이다.
- ㄴ. 제시된 10개국 중 2011년 10월 입국인원 합계순위에 비하여 공용목적의 입국인원 순위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이다.
- ㄷ. 2011년 10월에 기타국가를 포함한 전체 입국인원 수가 8,082,537명이라면 제시된 10개국 중 전체 입국인원의 3%를 초과하여 입국한 국가는 4개국이다.
- ㄹ. 제시된 10개국 중 관광목적의 입국인원 대비 상용목적의 입국인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